2024년 / 11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1월 15일(금) 10시 : <전북 의병과 미래공동체> 인문 포럼

■ 연구원 소식

- 인문포럼 <전북 의병과 미래공동체> 개최 안내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광복회 전북지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문포럼「전북의병과 미래공동체」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일시: 2024. 11. 15(금) 10:00~12:00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

○ 세부일정

- 개회식
- 발표: 전북의병의 현황과 성과(전주대 교수 김건우),
- 전북의병 연구와 미래 과제(한국고전문화연구원 원장 변주승)
- 종합토론: 이강안(광복회 전북지부장), 이향배(충남대 교수), 윤상원(전북대 교수)

포럼에 참석하실 연구원 회원께서는 11월 15일 10시까지 전북 보훈회관 강당으로 입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최후의 산 사람, 토벌되다 – 1963. 11. 12.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10년 뒤였다.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가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가 선글라스 낀 작달막한 장군이 나라를 틀어쥐었고 그가 군복을 벗고 선거를 치러 대통령이 된 뒤의 일이었다. 지리산 인근 마을에서 총성이 울렸고 한 명이 시체가 되어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엉덩이에 총알을 맞았다. 총상이 심해 결국 다리 하나를 잘라야 했고 그 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피고의 이름은 정순덕. 남한에서 살아남았던 마지막 빨치산이었다.

그녀는 1933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나이 열여섯 살에 입 하나 덜자고 정순덕은 인근 마을로 시집을 간다. 1950년 1월이었다. 다행히도 남편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알콩달콩 정을 쌓아가던 무렵 전쟁이 터지고 원래 빨치산세가 강하던 산청 지역은 일찌감치 인공 치하에 들어간다. 남편은 인공 치하에서 팔자에 없는 감투를 썼고 전세가 뒤집히자 그 감투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다. 그의 남편은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좌우 상호간의 그 꼼꼼한 민간인 학살의 반복은 남편을 산으로 내몰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부부의 생이별이었고 고난의 시작이었다. 가난도 가난이려니와 걸핏하면 찾아와 빨갱이 남편 내놓으라며 치고 밟는 경찰과 청년단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1951년 겨울, 정순덕은 남편의 옷가지와 식량을 싸들고 산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꿈처럼 남편을 만나지만 그들이 함께 했던 시간은 스무 날도 못 되었다. 남편은 곧 죽음을 당했고 그녀는 빨치산의 일원으로 살아야 했다. "적은 것을 여럿이 갈라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야 하고, 또 부상병을 간병하는데도 여성의 손길이 필요"(정순덕의 증언)했고 그녀 또한 그 대의에 동의했기에 산에 머물렀지만, 사실 그녀는 내려올 수도 없었다. 일자무식에 남편은 죽어 없고, 빨치산의 마누라로 공인된 여자가 산을 내려간들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전투 훈련을 받았고 빨치산이 됐다. 그녀가 이념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돌아갈 곳 없는 절망감과 남편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 해 주는 것 없이 괴롭히기만 했던 나라에 대한 환멸, 그 모든 것이 뭉쳐진 결심이 아니었을까.

허무하게 죽어버린 남편과 달리 그녀는 끈덕지게 살아남았다. 그녀가 몸서리치게 기억하는 1952년 겨울 지리산 대성동 초토화 진압 때에도 죽음을 면했고, 이현상, 박영발 등 빨치산 총수들이 죽어갈 때에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정순덕은 춘하추동 냉정하게 반복되고 겨울에 잠을 자다간 동태 꼴이 되기 십상인 지리산에서 13년을 치러 낸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체포로 남한 빨치산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체포 뒤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그녀는 "조금이라도 감형하면 개놈이다!"라고 외쳤고, 국선변호인에게도 "집어치워! 어서 죽이기나 하라고!"라고 악을 쓰기도 했다. 그녀가 50년대에 체포되었더라면 사형을 면치 못했겠지만 이미 '망실 공비'로 분류되던 마지막 빨치산에게 재판부는 약간의 '정상'을 참작한다. 판결문은 이렇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행위는 형벌의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농촌에서 무식한 아녀자로서 16세에 결혼, 신혼 6개월만인 6•25전쟁 때 남편을 따라 입산한 것이 동기가 되어 정치적인 확고한 신념 없이 13년 동안 산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희생물이 된 정상을 참작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이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23년을 복역한다. 풀려난 뒤에는 음성 꽃동네에도 몸을 의탁했고, 인형눈도 붙이고, 봉투도 만들면서 생을 이어나가야 했다. 지리산에서의 13년을 제외하면 그 전이나 후나 그녀는 항상 바닥이었다.

그래도 전쟁만 아니었다면 소작 붙여먹는 농사꾼의 아내로서 아이 여럿을 낳고 그 중에 잘된 자식의 효도를 받으며 호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의 폭풍은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렸다.

결국 그녀는 20년 전인 2004년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묘역이었던 파주시 보광사에 안장되었고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졌다.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 하나 된 조국의 산천에 봄꽃으로 돌아오소서."

묘비는 안장 이듬해 HID 출신 '청년 동지회'들이 망치로 부숴버렸다.